

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

(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13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1일

발 의 자: 최민규,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태, 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 남창진, 박상혁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이희원, 장태용, 최유희, 황철규 의원(29명)

1. 주문

-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하철 이용 인구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입구 추가 신설을 건의함

2. 제안이유

- 신안산선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 안산~광명~서울 여의도, 송산차량기지~시흥시청~광명을 연결하는 44.7km를 잇는 지하철 노선으로, 19개의 역사와 1개의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임
- 대림삼거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, 종합병원 및 상가·종교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10만 여명에 달하는 교통 상습 정체 지역으로 신대방동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2010년 신안산선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되었음

- 하지만, 신안산선이 2019년 민자사업으로 변경된 후에 대림삼거리 역의 위치가 명칭과 달리 대림삼거리에서 약 350m 떨어진 대림사거리 인근(신대방동 607-27번대 일대)으로 확정되었고, 2개에 불과한 지하철 출입구는 인구밀집 지역인 아파트 대단지와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됨
- 또한, 대림삼거리역이 완공되면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구로디지털단지 지역, 신대방역, 신풍역 등 주변 역세권과 연계성이 강화되어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- 따라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진하기 위해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인 신대방우성아파트 방향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의 추가 출입구 신설을 건의함

3. 이송처

- 국회, 국토교통부, 서울시

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

- 신안산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, 경기 안산~광명~서울 여의도, 송산차량기지~시흥시청~광명을 연결하는 44.7km를 잇는 지하철 노선으로, 19개의 역사와 1개의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.
- 대림삼거리역은 2006년 신안산선 기본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항의와 국회 청원 등을 통해 2010년에 추가되었고, 2019년 8월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대림삼거리역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.
- 현재 대림삼거리는 1일 유동인구가 10만명에 달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, 종합병원 및 상가·종교 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으나, 대림삼거리역은 명칭과 달리 대림삼거리에서 약 350m 떨어진 대림사거리 인근(신대방동 607-27번대 일대)에 설치될 예정입니다.
- 더욱이, 대림삼거리역의 2개 출입구 모두 인구가 밀집된 신대방우성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방면으로는 설치되지 않아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됩니다.
- 또한, 대림삼거리역이 완공되면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구로디지털단지역, 신대방역, 신풍역 등 주변 역세권과 연계성이 강화되어 지역 전체

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

-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동작구 주민의 교통난 해소 및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대방우성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방향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의 추가 출입구 설치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.

2022. 10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